인문연구 제95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21. Vol. 95, No. 1, pp.99~132
http://dx.doi.org/10.21211/JHUM.95.4

대구를 기록한 일본인

- 후지이 주지로(藤井忠治郎)의 대구 하층사회 기록 -

최범순*

〈차 례〉

1. 시작하며
2. 대구 조선인 하층사회 기록자, 후지이 주지로
 1) 후지이 주지로와 대구
 2) 후지이 주지로, 조선부식농원, 대구SOS어린이마을
3. 후지이 주지로의 1920년대 대구 하층사회 기록
 1) 대구의 조선인 '노동소년'
 2) 대구 조선인 하층민의 일상생활
 3) 하층민의 경제생활 : 전당포·고리대금
 4) 하층민 여성 문제 : 기생·공창·사창
4. 마치며

【국문초록】

본 논문은 후지이 주지로(藤井忠治郎)가 1920년대 전반기 대구의 조선인 하층사회를 기록한 기록물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

* 이 연구는 2019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19 Yeungnam University Research Grant."
* 영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당 기록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전혀 주목받지 않았던 '후지이 주지로'라는 인물과 그의 행적, 그리고 그가 1920년대 대구의 조선인 하층사회를 연재한 잡지 『경북(慶北)』이라는 자료가 지니는 역사적 의미 또한 밝히고자 했다.

본 논문은 우선 후지이 주지로가 1920년대 대구의 조선인 하층민 64세대를 조사한 기록이 식민지 시기 조선인 하층사회 관련 기록물 가운데 가장 선구적인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후지이 주지로의 기록은 1920년대 전반기에 대구가 근대도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직면했던 도시빈민의 매우 중요한 사항들을 전해주고 있으며, 그 내용은 비단 대구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1920년대 전반기 조선의 주요 지역이 근대도시로 전환하면서 겪어야만 했던 문제들이기도 했다. 또한 해당 기록이 연재된 잡지 『경북』은 한일 양국에서 원본 자료 전체를 소장하고 있는 것이 한 곳밖에 없는 귀중 자료이고, 식민지 시기 지자체가 발간한 월간지 형태 공보잡지 가운데 가장 빠른 사례에 해당하며, 후지이 주지로의 기록을 포함해서 1920년대 전반기 지역의 다양하고 중요한 정보를 많이 수록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주제어: 식민지, 대구, 1920년대, 후지이 주지로, 근대도시, 도시빈민, 사회사업

1. 시작하며

본 논문은 '후지이 주지로'라는 일본인이 1922년 12월부터 1924년 6월까지 잡지 『경북(慶北)』에 연재한 1920년대 전반기 대구 하층사회 기록의 내용을 소개하고 해당 기록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

를 고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결론을 앞당겨 밝히자면 후지이 주지로가 남긴 기록은 식민지 시기 조선인 하층민 기록물 가운데 가장 선구적인 위치에 있으며, 후지이 주지로가 해당 기록을 연재한 잡지 『경북』은 새롭게 발굴-소개되는 지역 관련 귀중 자료이다. 본 논문은 후지이 주지로의 대구 조선인 하층사회 기록이 1920년부터 본격화되는 '사회사업' 영역에서 가장 선구적인 기록물이라는 사실을 밝힌 점, 1920년대부터 본격화되는 '면' 단위 행정 체제의 확산과 보급이라는 보다 촘촘한 식민지 지배정책의 확산과 보급 과정을 지역 단위에서 기록한 자료를 발굴-소개한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러한 의미들 가운데 우선 이번 논문에서는 1920년대 전반기에 대구의 조선인 하층사회를 기록한 후지이 주지로가 어떤 인물인지, 기록 내용과 기록에 담긴 문제의식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해당 기록이 어떤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지를 밝히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후지이 주지로가 잡지 『경북』에 게재한 글은 총 열 편으로 확인되는데, 이 가운데 여덟 편에 「조선인 하층사회 연구」라는 연재 제목을 붙였다. 여덟 편의 내용과 게재 시기는 다음과 같다.[1)]

〈표 1〉 후지이 주지로의 '조선인 하층사회' 연재 목록

게재 제목 및 핵심 내용	게재연월
조선인 하층사회 연구: 조선인 노동소년과 보호	1922.12
조선인 하층사회 연구: 생활문제 식(食)과 주(住)	1923.7
조선인 하층사회 연구: 고리대금과 전당포	1923.9
조선인 하층사회 연구: 하층민의 직업과 수입	1923.10
조선인 하층사회 연구: 예기(기생)	1924.1
조선인 하층사회 연구: 공창	1924.3
조선인 하층사회 연구: 사창	1924.5
조선인 하층사회 연구: 빈곤과 보건	1924.6

1) 「조선인 하층사회 연구」 연재 총 분량은 200자 원고지 약 253매, 약 5만 자 분량이다.

후지이 주지로의 기록은 제목만 보면 조선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920년대 전반기 대구의 남성정(南城町) 일대 조선인 빈민 64가구를 상세히 조사·기록한 것이다. 이후에 상세히 소개하겠지만 1920년대 대구 지역의 조선인 하층사회 실태를 매우 구체적인 수치로 기록했다는 점이 우선 놀랍고, 더불어 대구의 조선인 하층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일본 본토의 통계는 물론이고 유럽의 정보와 통계까지 인용한 점도 놀랍다. 후지이 주지로의 1920년대 전반기 대구 조선인 하층사회 기록은 당시 대구의 특정 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후지이 주지로가 대구 하층사회 기록을 연재한 잡지 『경북』은 1922년 9월에 창간되어 1925년 3월까지 일본어로 간행된 경상북도의 공보잡지(公報誌)였다. 발행 주체는 경북연구회(慶北研究會)인데 도지사가 회장, 부지사가 부회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연구회와 잡지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다.[2] 잡지 『경북』은 기본적으로 경상북도 지역에서 근대적 행정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간행된 잡지였던 것이다. 그런데 잡지 전체를 통독해 보면 『경북』이 비단 행정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문학, 해외 정보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종합잡지에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잡지 『경북』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변화된 식민지 지배정책이 대구·경북 지역 행정 영역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역사 연구자료로써 활용 가치가 크다. 더불어 지역 단위에서 발행한 공보잡지 가운데 월간지로는 가장 빠른 사례라는 점에서도 역사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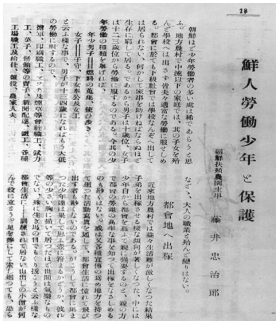
---

2) 잡지 『경북』 창간호(1922.9.) 마지막 부분 「회보」에는 잡지 발간 주체인 경북연구회의 회장, 부회장, 위원, 간사, 편집주임 명단이 실려 있다.

3) 식민지 시기 지역 단위 공보잡지는 『경성휘보(京城彙報)』(1921년 월간신문 형태로 창간, 1925년부터 월간지), 『평양휘보(平壤彙報)』(1922년 창간,



〈그림 1〉[4]


鮮人勞働少年と保護
藤井忠治郎
都會地へ出稼

〈그림 2〉[5]

그런데 대구의 조선인 하층사회에 대한 후지이 주지로의 기록은 위 여덟 편의 글에 그치지 않았다. 후지이 주지로는 '빈곤과 아동, 빈곤층의 생활상, 빈곤과 여성, 빈곤과 보건·질병'이라는 주제로 분류할 수 있는 여덟 편의 글 이후에도 꾸준히 조선인 하층사회 기록을 축적해서 1926년에 『조선무산계급연구(朝鮮無産階級の研究)』[6]라는 총 257페이지에 달하는 단행본을 묶어냈다. 그리고 1930년에는 대구의 조선인 하층민을 상담하고 만났던 경험을 에세이 형태로 적은 『여명을 받드는 자(黎明を仰ぐもの)』를 출판한다.[7] 이 책도 총 211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고 출판한 곳은 당시

1931년부터 월간지), 『부산(釜山)』(1926년 7월 창간 추정), 『인천휘보(仁川彙報)』(1934년 월간지로 창간), 『목포휘보(木浦彙報)』(1933년 창간) 등이 있다. 지역별 월간지 형태 발행 시기를 보면 잡지 『경북』이 가장 빠른 사례임을 확인할 수 있다. 坂本愁一·木村健二, 『近代植民地都市 釜山』, 桜井書店, 2007, p.58.

4) 잡지 『경북』 표지의 일례. 1924년 1월호 표지. 경상북도의 인구밀도 통계를 표지로 디자인한 것이 인상적이다.

5) 「조선인 하층사회 연구」 연재 첫 글. 후지이 주지로 이름 위에 '조선부식농원 주사(朝鮮扶植農園 主事)'라고 적혀 있다.

6) 藤井忠治郎, 『朝鮮無産階級の研究』, 帝国地方行政学会朝鮮本部, 1926.

7) 藤井忠治郎, 『黎明を仰くもの』, 大橋書店, 1930.

대구에 있었던 오하시 서점(大橋書店)이다. 흥미로운 것은 1986년에 후지이 주지로의 두 책이 『일제하빈민관계자료(日帝下貧民關係資料)』[8] 형태로 복각된다는 사실이다. 총 두 권으로 구성된 『일제하빈민관계자료』는 모두 후지이 주지로의 기록이다. 이는 한국 역사학계가 후지이 주지로의 기록이 지니는 중요성을 인정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후지이 주지로의 기록물이 식민지 시기 '빈민' 관련 한국사 연구에서 귀중한 1차 자료임을 입증한다.

후지이 주지로의 1920년대 전반기 대구 조선인 하층사회 기록은 식민지 시기 조선인 하층민 기록물 가운데 가장 빠른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식민지 시기 조선인 하층민 조사 기록에서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은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가 출판한 『토막민의 생활·위생(土幕民の生活·衛生)』[9]이다. 이 책은 1940년에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4학년 20명이 서울 부근의 토막민을 조사해서 출판한 것으로 토막민의 주거환경과 생활실태를 조사한 대표적 기록물이다.[10] 이보다 이른 시기에는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가 1924년부터 1930년대에 걸쳐 조선의 농촌과 소작농, 조선의 인구, 제주도 생활실태, 조선의 취락 등을 조사·기록하기는 했지만 하층민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11] 사회문제로서 토막민이 주목받기

8) 藤井忠治郎, 『日帝下貧民關係資料1-2』, 여강출판사, 1986.

9) 京城帝國大學衛生調査部, 『土幕民の生活·衛生』, 岩波書店,1942.

10) 이 자료의 서문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최근 의학계가 〈사회의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고 서술한 대목이다. 해당 조사-기록은 이 〈사회의학〉의 실천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11) 젠쇼 에이스케의 대표적 조사-기록으로 『농촌의 경제(農村の経済)』(1924), 『조선 인구 연구(朝鮮の人口研究)』(1925), 『조선의 소작 관습(朝鮮の小作慣習)』(1929), 『제주도생활실태조사(濟州島生活狀態調査)』(1929), 『朝鮮の聚落』(1933~1935)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밖에 조사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자료들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조선의 빈부 고찰(朝鮮に於ける貧富考察)」, 「특수부락과 토막부락(特殊部落と土幕部落)」와 같은 잡지 게재 기사 등은 있다.

시작한 계기가 1925년의 한강 대홍수 이후였다[12]는 것을 감안하면 후지이 주지로의 1920년대 전반기 대구 조선인 하층사회 기록이 관련 기록물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한국 근현대사 연구자인 강만길은 1987년에 빈민 연구의 선구적 성과인 『일제시대 빈민생활사 연구』[13]를 출판하면서 '서설'에서 "식민지 조선에 와서 하층계급과 오랫동안 접촉한 경험을 가진" 인물로 후지이 주지로를 특별히 언급하고 본문에서는 『조선무산계급연구』 속 기록과 통계를 인용한다. 강만길이 그의 책에서 인용한 다른 자료들이 대부분 1930년 이후 것이고 가장 빨라도 1924년 이후 자료인 점을 감안하면 후지이 주지로의 대구 하층사회 기록은 식민지 시기 조선인 하층민 기록물 전체에서 선구적인 위치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2. 대구 조선인 하층사회 기록자, 후지이 주지로

1) 후지이 주지로와 대구

1920년대 전반기 대구의 조선인 하층사회를 기록한 후지이 주지로는 생몰 연도 등의 기초 정보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인물이다. 후지이 주지로에 대한 자료가 너무 적어서 그가 언제 대구에 이주·정착했는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현재는 1906년경으로 추정할 뿐이다. 앞서 소개한 『여명을 받드는 자』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조선무산계급연구』 광고가 실려 있는데 해당 광고문에는 "이 책은 저자가 20년의 긴 세월을 스스로 조선인의 한 사람이 되어 그

12) 尹敭郁, 『植民地朝鮮における社会事業政策』(大坂経済法科大学出版部, 1996. 9.) p.95.
13) 강만길, 『日帝時代 貧民生活史 硏究』(창작사 창비신서79, 1987)

야말로 모든 하층계급 사람과 접촉하며 얻은 체험에 기초했다"는 문구가 있다.[14] 광고문구에 있는 '20년'이라는 시간과 책의 출판 연도를 조합해 보면 후지이 주지로는 1906년경에 대구에 왔을 가능성이 높다.

후지이 주지로가 대구에 이주·정착한 시기로 추정되는 1906년 무렵은 일본인들이 대구에 그야말로 물밀듯이 밀려온 시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한반도 전체에 일본인들이 급격히 유입된 시기이기도 하다. 그 배경에 1904년~1905년에 벌어진 러일전쟁과 일본의 승리, 을사조약이 맺어진 역사적 상황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1911년 1월에 출판된 『조선 대구일반』[15] 속 1903년 이후 대구의 일본인 인구 추이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1903년 9월 시점에 대구의 일본인은 17~18명이었다.[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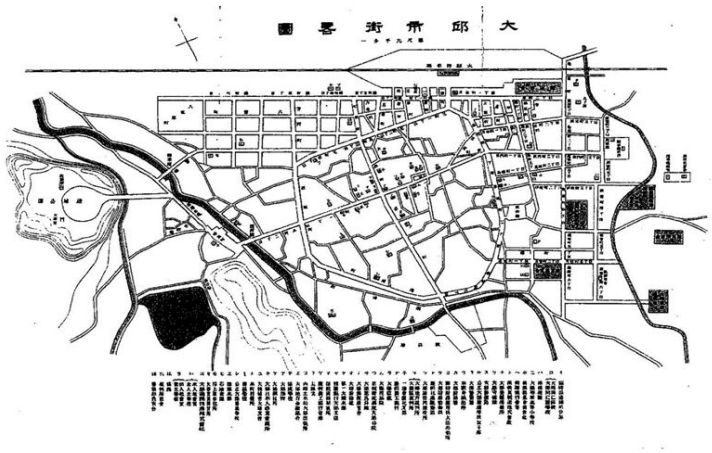
〈표 2〉 1903년~1910년 기간 대구의 일본인 인구 추이

1903년말	76명	1904년말	730명
1905년말	1,508명	1906년말	1,646명
1907년말	2,675명	1908년말	3,501명
1909년말	4,936명	1910년말	6,430명

위 표를 보면 1903년~1910년 기간에 일본인들이 그야말로 물밀듯이 대구에 이주했던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06년 이후에는 매년 천 단위 숫자가 바뀌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준다. '러일전쟁과 을사조약'이라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진행된 일본인의 급격한 유입이 '대구'라는 공간의 물리적 변화를 수반

14) 藤井忠治郎, 『黎明を仰くもの』, 大橋書店, 1930, p.213.
15) 三輪如鐵, 『朝鮮 大邱一斑』(杉本梁江堂, 1911.1)
16) 미와 조테츠 지음, 최범순 옮김, 『조선 대구일반』, 영남대학교출판부, 2016, p.161.

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대구가 근대도시 측면에서 겪은 가장 큰 물리적 변화는 철도부설과 읍성의 해체였는데, '경부선 철도 속성공사' 기간은 러일전쟁 기간과 완벽하게 겹친다. 주지하다시피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대구는 러일전쟁을 위해 속성으로 부설된 경부선 철도와 그 철도를 타고 물밀듯이 밀려온 일본인 유입으로 인해 읍성 해체와 급격한 물리적 공간 재편을 겪어야만 했다. 이렇게 보면 대구는 '러일전쟁'이라는 제국주의 전쟁 과정에서 동아시아 근대도시로 변모·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적지 않은 근대도시가 일본 주도의 제국주의 전쟁과 세계적 차원의 제국주의 전쟁이 점철된 상황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대구는 그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아래 지도[17]는 1910년 시점에 러일전쟁과 경부선 철도부설을 계기로 급격히 유입된 일본인들이 읍성을 해체하면서 대구에 어떻게 정착하고 공간을 점유해 갔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림 3〉 1910년경 대구 시가지 약도

17) 미와 조테츠 지음, 앞의 책, p.7.

지도 중앙의 심장과 비슷한 모양을 한 부분이 해체 이전 대구읍성 성곽과 성내 구역이다. 일본인들은 대구 읍성 북쪽(윗쪽)과 동쪽(오른쪽) 바깥 공간에 토지 및 도로 정비를 하면서 정착했다. 1910년 시점의 위 지도는 일본인들이 이미 옛 읍성 넓이에 필적하는 넓이를 읍성 바깥에 점유한 상황을 전해준다. 참고로 지도의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에 걸쳐 대각선처럼 이어지는 검은 곡선은 현재는 볼 수 없는 하천이다.

후지이 주지로는 러일전쟁과 을사조약 직후 급증한 한반도 이주 일본인들 대열 속에 있었겠지만, 그의 행보는 당시의 대다수 일본인들과 달랐던 것 같다. 1905년~1910년 기간에 조선에 건너온 일본인들은 주로 군인, 상인, 하급 관리, 예기・작부와 같은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이 절대다수였는데[18] 이들은 러일전쟁을 계기로 시작된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즉 당시 대다수 한반도 이주 일본인들은 제국주의 및 식민지 지배정책에 직접 관여하거나 편승했다고 할 수 있는데, 후지이 주지로는 이러한 일본인들과는 이질적인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현재까지 조사한 후지이 주지로의 주요 이력은 가시마 도시로(加島敏郎)가 1910년 10월에 동촌에 설립한 '조선부식농원(朝鮮扶植農園)'의 주사(主事)였다는 사실[19], 1921년 2월에 대구의 조선인들이 설립한 '영남구제회'가 1922년 12월의 경북사회사업창립위원회 설립과 동시에 '경북구제회'로 합병되는 과정에서 소속을 조선부식농원에서 경북구제회로 옮겼다는 사실 정도이다.[20] 이렇게 제

18) 高崎宗司, 『植民地朝鮮の日本人』, 岩波書店, 2010, p.97.

19) 후지이 주지로는 잡지 『경북』 창간호(1922.9.)에 게재한 「은혜를 입지 못한 밑바닥 생활」이라는 글에서 자신의 소속・직위를 '조선부식농원 주사'라고 명기했다.

20) 후지이 주지로는 잡지 『경북』 1923년 9월에 게재한 글에서 자신의 소속을 '경북구제회'로 적고 있다. 그 이전 호에 게재한 글에는 별도의 소속

한적인 정보이긴 하지만 앞서 소개한 기록물 내용, 조선부식농원 및 경북구제회가 고아를 돌보고 교육하고 자립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였다는 사실을 조합해 보면 후지이 주지로는 식민지에서 조선인 사회의 빈곤과 고아 문제의 실태를 조사·기록하는 동시에 해당 문제를 사회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일본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후지이 주지로가 잡지『경북』에 '조선인 하층사회 연구'를 연재하기 시작한 시점이 1922년 12월이라는 사실은 흥미롭다. 특히 '조선인 하층사회 연구' 연재의 첫 번째 주제가 '조선인 노동소년과 그 보호'였다는 점과 경북구제회가 주로 조선인 고아를 '구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지이 주지로는 경북사회사업창립위원회 설립이 준비되던 1922년의 어느 시점부터 조선인 하층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고 '노동소년, 고아' 문제에 특히 관심을 기울였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확실히 후지이 주지로는 당시 대구의 일본인 가운데 이색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다. 더불어 사회복지시설과 '하층민' 관련 시설을 부동산 자산 관점에서 '혐오' 시설로 기피하는 현대 한국사회의 실상에 비추어 봐도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이다.

2) 후지이 주지로, 조선부식농원, 대구SOS어린이마을

후지이 주지로가 당시 대구의 조선인들이 설립한 경북구제회로 소속을 옮기기 전에 있었던 '조선부식농원'이라는 단체도 식민지 조선의 사회문화사 측면에서 중요한 족적을 남겼다. 후지이 주지로가 주사로 일했던 시기에 조선부식농원은 당시 조선에서 최초로

표기를 하지 않고 있다. 대략 1923년 여름~9월 사이에 소속 단체를 변경한 것으로 추정된다.

활동사진「레미제라블」전국순회 상영회(1920.5.11.~1920.6.25.)를 주최했는데, 이것은 민태원이『매일신보』에 연재한「애사(哀史)」(1918.7.28.~1919.2.8, 총152회)와 함께 조선의『레미제라블』수용과 확산에 큰 영향을 끼쳤다.[21]

조선부식농원 관련 기록물은 가시마 도시로(加島敏郎)가 1910년 10월에 금호강 대홍수를 계기로 조선인 아동을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1914년부터 시작한 조선인 고아 수용은 1920년 시점에 이르러 100명 수용 계획으로 확대되었고, 조선부식농원은 시설 확충 기금을 모으기 위해 조선에서 최초로 활동사진「레미제라블」전국순회 상영회를 주최한 것이다. 후지이 주지로는 '주사'라는 직책상 이 과정에 관여했을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은 약 100년 전에 후지이 주지로가 몸담았던 조선부식농원이 소재했던 장소에서 지금도 같은 목적의 사업이 같은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구 동구 해동로 219번지에는 '대구SOS어린이마을'이라는 시설이 있다. SOS어린이마을(SOS CHILDREN'S VILLAGES)은 아동 복지 노동자인 헤르만 그마이너(Hermann Gmeiner)가 1949년에 오스트리아의 티롤에 설립한 단체이다. 설립 시점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이 단체는 제2차 세계대전이 남긴 많은 전쟁고아를 돌보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현재도 이 단체는 국제민간사회복지기구(INGO: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서 전세계 136개국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 단체의 비유럽권 최초 사업지가 바로 대구였다.[22]

대구가 오스트리아 SOS어린이마을의 비유럽권 최초 사업지가

---

21) 졸고,「식민지 조선의「레미제라블」과 대구 조선부식농원」(『일본어문학』 73, 2016.5.), pp.293~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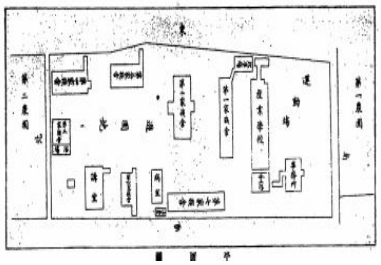
22) 박상호 사도요한신부,『한국SOS어린이마을50년사 1963-2013』, 분도출판사, 2014, pp.56~60 참조

된 배경에는 한국SOS어린이마을 창설자이기도 한 오스트리아 여성 하 마리아(Maria Heissenberger)의 존재가 있었다. 1930년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하마리아는 1959년 선교사로 입국한 이후 33년 동안 가난한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지속했는데 그 장소가 바로 대구였던 것이다. 그녀의 첫 활동은 대구의 구두닦이 소년 16명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뒷바라지하는 것이었고 이 활동의 연장선에서 1962년에 SOS어린이마을을 창설했으며 1965년에 15채의 SOS집이 준공되었는데 그 자리는 바로 1945년 이전까지 조선부식농원이 있었던 곳이었다.[23] 설명을 덧붙이자면 1945년~1962년 사이에는 대구의 공무원 출신 인물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관리・지속했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후지이 주지로가 몸담았던 '조선부식농원'의 사업은 1910년으로부터 110년이 지난 현재에도 같은 장소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현재 대구광역시의 넓은 장소 가운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이 11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지는 동시에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이 일본인, 한국인, 오스트리아 선교사 여성, INGO 한국SOS어린이마을 등으로 주체가 다채롭게 바뀌는 가운데서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큰 의미로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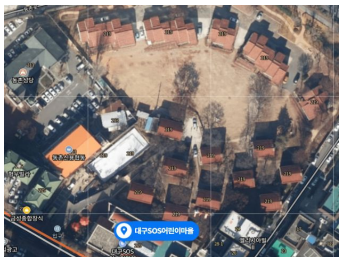
또 하나 놀라운 것은 1945년 이전과 이후에 사업의 주체가 바뀌었지만 아동을 돌보는 매우 독특한 방식은 일관되게 지속되었다는 사실이다. 조선부식농원의 기록물을 보면 가시마 도시로는 기독교 사상에 기반한 운영 및 교육과 더불어 '의사가족(疑似家族)'을 꾸리는 방식으로 아동을 돌보았다. '의사가족' 방식이란 혈연으로 연결된 어머니는 아니지만, 어머니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가족과 같은 관계를 맺어주고 실제 생활도 의사가족 단위로 꾸리는 것을 말한다. 조선부식농원 관련 자료에서 시설 평면도

23) 앞의 책, p.76.

를 살펴보면 농원, 교육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있는 가운데 생활과 숙식 공간이 가족동(家族棟) 단위로 지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시설 형태와 돌봄 방식은 현재 대구SOS어린이마을의 시설 형태 및 운영 방식과 같다. 이 놀라운 공통점이 1945년 이전 세계적 차원의 사회복지사업의 한 방식이었는지, 혹은 조선부식농원의 방식을 존중해 1945년 이후에도 계승한 것인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110년'이라는 연속된 시간만큼이나 같은 돌봄의 방식과 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인상 깊게 다가온다. 직접 가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듯이 대구SOS어린이마을의 시설은 3~4층 네모난 건물의 방마다 일정 인원을 '수용'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어져 있다.



〈그림 4〉[24]



〈그림 5〉[25]

식민지 시기에 일본인이 남긴 대구의 조선인 하층사회 기록에 대해서는 평가가 갈릴 수 있다. 예컨대 후지이 주지로의 기록이나

24) 1909년경 오사카범애부식회 시설 평면도. 건물에 해당하는 다양한 모양의 직사각형 안에는 '가족동(家族舍)'라고 적혀 있다. 조선부식농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건물을 세우고 운영했다. 高見健一, 『大阪汎愛扶植会』(大阪汎愛扶植会, 1909), p.11.

25) 대구SOS어린이마을의 현재 배치도. 하단의 사무관리동을 중심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단독주택 형태로 지어진 '가족동'들이 보인다. 가족동 중앙에 넓은 잔디밭이 있다.

활동은 결국 식민지 지배정책의 일환이었고 동정심의 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한계가 드러나는 대목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기록과 활동이 지니는 또 다른 측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후지이 주지로가 관심을 기울인 빈곤 문제, 특히 '도시와 빈곤'의 문제는 실은 해당 시기 조선만의 문제도 아니었다. 같은 시기 일본 본토의 문제이기도 했고 더 나아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20년대로 이어지는 시기의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했다. 1917년의 러시아혁명에서 1920년대 세계 경제대공황으로 이어졌던 상황을 떠올려보면 당시 시대 상황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후지이 주지로의 대구 하층사회 기록과 그 근저에 있는 문제의식을 이해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3. 후지이 주지로의 1920년대 대구 하층사회 기록

후지이 주지로는 1920년대 대구의 조선인 하층사회 실태를 단지 조사·기록하는 데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의 기록에서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것은 실태 조사와 기록에만 머물지 않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요구하는 대목이다. 진정성은 비평과 비판을 넘어 대안과 실천에서 더 명확히 확인된다. 후지이 주지로는 시영(市營)·부영(府營)·공공기관운영 '공영빈민주택' 건설의 시급성, '공설전당포' 설치 필요성 및 유럽의 관련 역사와 일본의 1919년~1920년 사례, '공설직업소개소·공설상담소·공설시장·공공병원·도서관·공영주택·상해보험·실업수당'의 필요성 등을 각 글들의 결론 부분에서 제안하는데 이 요청들은 모두 〈공공성〉에 기초한 것이다. 후지이 주지로는 대구가 근대도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도시빈민-하층민 문제와 경제적 격차 문제를 '근대' 사회가 초창기

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지향했던 공공성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럼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후지이 주지로가 1920년대 전반기 대구 조선인 하층사회를 기록한 내용과 진단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대구의 조선인 '노동소년'

후지이 주지로가 1920년대 대구 조선인 하층사회에서 가장 먼저 주목한 대상은 대구의 조선인 '노동소년'들이었다. 이는 조선부식농원과 경북구제회에서 조선인 고아들을 만나왔던 후지이 주지로의 이력이 영향을 끼쳤겠지만, 1920년대 조선 전체 상황과 맞물린 부분이 보다 중요해 보인다. 후지이 주지로는 다음과 같이 해당 연재를 시작한다.

> 조선만큼 소년 노동자가 많은 곳은 드물다고 생각한다. 지방 농촌의 중류 이하 가정에서는 자녀를 학교에 거의 보내지 않고 모두 적당한 노동을 시킨다. 도회지에서도 하층사회에서는 학교에 감히 보낼 수 없고 어떻게든 가사를 돕게 해야 할 만큼 궁핍하다. 따라서 남자아이는 10세 정도, 여자아이는 12~3세 정도부터 노동하는 것이다. 소년노동의 종류는 남자아이는 연료(땔감) 모으기와 심부름이고 여자아이는 아이 돌보기, 하녀, 여공 등이다. 남자의 경우 13~4세가 되면 대개 일반적인 노동에 종사해서 담군(擔軍:짐을 메어 나르는 품팔이꾼-인용자), 인쇄직공, 성냥·담배회사 등의 직공, 과자·엿팔이, 신문배달, 철공소 등 각종 공장 직공 및 급사(給仕: 사환-인용자), 잡역부, 농가 인부 등 어른의 직업(일)과 거의 차이가 없다.[26]

후지이 주지로는 이어서 조선의 '노동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지방 농촌에서는 생활고가 점점 심해진 결과 자녀를 타지에 벌

26) 慶北研究会, 『慶北』第一年第四号, 大邱印刷合資会社, 1922.12, p.18.

이 보내는 경향이 현저"하다고 그 배경을 밝히는데 이것은 대구를 포함한 당시 조선의 근대도시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도시로 유입된 인구의 경로와 특징이기도 하다. 그런데, 대구는 조선의 근대도시화 과정에서 특징적인 양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1920년~1925년은 조선에서 도시화율이 다른 어떤 5년 단위 기간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던 기간인데, 이 중에서도 대구는 새롭게 건설된 신의주와 청진을 제외하면 1915년~1925년 기간에 걸쳐 목포와 함께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도시화율)을 기록했다. 그 증가율은 100%, 즉 두 배이다.[27] 후지이 주지로는 조선인 하층민의 주거환경을 다룬 기록에서 "조선의 모든 도시가 나날이 팽창"한다고 적었는데 그가 살던 대구는 그 팽창도가 조선 전체에서 가장 두드러진 도시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팽창에서 '노동소년'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다.

대구는 한반도 근대도시 가운데 드물게 내륙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비율이 매우 높기도 했다. 1920년에 대구의 일본인 비율은 부산(44.8), 군산(40.0), 청진(36.7), 목포(31.6), 인천(30.9)에 이어서 경성, 신의주와 비슷한 26.7%였지만, 1925년에는 부산(38.4), 군산(33.6)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30.7%를 기록한다. 이 양상은 1930년에도 부산(34.0), 군산(33.8), 대구(29.3)와 같이 계속되고 이후에도 지속된다.[28] 특히 해당 기간에 일본인 비율이 유지·증가한 도시는 대구가 유일하고, 다른 주요 도시는 모두 감소한다. 무엇이 이렇게 내륙도시 대구로 일본인을 유입시켰는지 궁금

27) 권태환, 윤일성, 장세훈『한국의 도시화와 도시문제』(다해, 2006), p.65 참조.

28) 1920년, 1925년, 1930년 조선 각부(各府) 민족별 인구통계 참조(坂本悠一·木村健二『近代植民地都市釜山』, 桜井書店, 2007.3, p.54). 1920년 시점의 각부 협의회 의원수를 보아도 대구는 경성 30명, 부산-평양 20명 다음으로 많은 16명이다. 1923년에는 경성은 30명 그대로 이고 부산-평양-대구가 20명이 된다. 인천은 16명이다. 같은 책, p.56.

해지는 대목이다. 대구는 근대도시 형성 과정에서 인구 유입 측면에서 매우 특징적인 도시였다.

그런데 후지이 주지로는 도시로 유입된 '노동소년' 문제에서 의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그것은 바로 "부자연스러운 조숙"이라는 말로 표현한 "남색(男色)-sodomy" 문제이다. 그는 도시로 유입된 소년들이 방황하는 과정에서 성인 남성들의 "성욕의 노예"가 되는 실태를 고발하면서 10세부터 15~6세 사이의 소년들이 그 대상이고 이로 인한 질환 종류도 상세히 소개한다. 이는 근대도시 형성 과정에 대해 생각할 때 떠올리지 못했던 문제라는 점에서 주의를 끈다. 후지이 주지로는 위와 같은 대구의 노동소년들의 실태를 제시하면서 결론적으로는 학교-교육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데, 그 현실적 대안이 조선의 전통적인 '계(契)'를 참고한 '학교계'라는 점이 흥미롭다. 후지이 주지로가 제안하는 '학교계'는 지역에서 교육이 가능한 사람들, 예컨대 "보통학교 출신자, 면직원, 주재소 순사, 청년회원, 교회 인사, 사원(寺院)의 교사, 기타 적절한 사람들이 명예직으로 교육 임무를 맡는" 형태이다. 그는 각 학교의 야학 설치, 교회나 사원을 개방한 보호소 설립-운영, 노동소년 보호사업 시행 등도 요구한다.

2) 대구 조선인 하층민의 일상생활

후지이 주지로가 '노동소년'에 이어서 기록·소개하는 것은 1920년대 대구 조선인 하층민의 생계비-식비 통계와 식생활 조사 기록이다. 후지이 주지로는 조선인 하층민의 식생활 조사 기록을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 성경에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동시에 인간은 빵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육체는 빵 없이 지탱할 방법이 없다. 원

> 래 조선인 하층사회의 생활문제에서 가장 머리가 아픈 것은 식량 문제이다. 의(衣)와 주(住) 문제는 먹는 것만큼 애타는 문제는 아니다. 매일같이 오늘 하루 어떻게 해서 밥을 먹을지가 다급한 하층빈민에게 옷과 집은 아무래도 상관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와 정반대되는 현상을 종종 목격하기도 한다. "사무라이는 굶어도 유유히 이쑤시개를 든다(양반은 얼어 죽어도 짚불은 안 쬔다-필자)"는 일본 속담 같은 것이 조선에도 있어서 세 번의 식사를 두 번으로 줄이더라도 옷은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결코 적지 않다. 필자에게 오는 무직의 극빈자와 걸인 등이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옷이다.[29]

인용문의 첫 단어는 후지이 주지로의 종교가 기독교였다는 사실을 의도하지 않게 드러낸다. 그가 1922년 중순까지 소속했던 조선부식농원의 설립자 가미사 도시로 역시 기독교도였다는 사실, 그리고 근대 이후 대구를 가장 종합적이고도 본격적으로 소개한 최초의 일본어 기록물『조선 대구일반』을 집필한 미와 조테쓰(三輪如鐵)도 기독교도였다는 사실 등과 함께 생각하면 대구 혹은 조선에 이주한 일본인을 기독교 내지 종교 측면에서 고찰하는 작업도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인용문은 또한 빈곤 상황에서 의식주 가운데 '의(衣)'에 대해 보여주는 한국의 문화적 특징도 전해주는데 이러한 서술·기록은 일상적으로 조선인 하층민들과 직접 대면하고 교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생생한 일상의 생활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후지이 주지로는 "빈민의 생계에서 가장 많은 지출은 식비"라는 측면에서 당시 대구의 조선인 하층민의 식비 정보와 식생활을 매우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우선 한 달 필요 식비는 "1인 5원, 2인 7원, 3인 9원 50전, 4인 12원, 5인 14원 내외이다. 이것은 최소 금액이고 조·보리를 주식으로 설정한 것이며 쌀로 산출한 것이 아니다. 쌀·보리 혼식 기준으로 식비를 산출하면 앞의 금액에 2~3

29) 慶北研究会,『慶北』第二年第七号, 大邱印刷合資会社, 1923.7, p.51.

할을 가산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한 후, 실제 조선인 하층민들은 "1개월 총생활비가 평균 3원~3원 50전이고 이 가운데 3할 정도의 잡비를 공제하면 약 2원 50전 내외의 식비로 한 달을 살아야 한다"고 당시 실상을 전한다. 또한 대구의 조선인 하층민 64가구의 식생활은 "주식 종류를 기준으로 쌀 2가구, 쌀·보리 혼합 4가구, 쌀·조 혼합 13가구, 싸라기·조 혼합 1가구, 조 42가구, 사먹기 2가구이다. 반찬은 주로 소금, 채소절임, 된장, 풀싹 등이고 야채와 육류는 매우 드물다"는 내용도 덧붙인다. 이와 같은 후지이 주지로의 기록은 다른 어떤 기록에서도 확인하기 어려운 매우 구체적인 1920년대 전반기 대구의 조선인 하층사회 자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후지이 주지로는 생계비-식비 및 식생활에 이어서 대구의 조선인 하층사회의 주거 실태 기록도 제시하는데 그 도입부에서 "조선의 모든 도시가 나날이 팽창하고 있고 ... 도회지는 최근 이례적인 주택난이어서 아무리 누추한 집이라도 놀라운 집세를 지불해야 한다. 작은 집일수록 상대적으로 집세가 비싸고 항상 부족한 상황이다. 교활한 집주인들은 이 주택난을 뜻하지 않은 행운으로 삼아 쥐어짤 수 있는 만큼 쥐어짜려고 한다"라는 문장으로 1920년대 전반기 대구의 주거·주택 문제 상황을 전한다. 이 인용문은 100년 전 대구도 2021년 현재 대한민국처럼 주택을 둘러싼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준다는 점에서도 인상 깊은데, 당시의 주택난과 주택가격 폭등은 앞서 소개한 1920년~1925년 기간에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1945년 이전의 다른 어떤 기간보다도 가장 많았던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도시 유입 인구가 급증하던 1920년대 전반기에 대구의 조선인 하층민들은 다음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최하등급 무네와리 나가야(棟割長屋: 한 채를 벽으로 칸막이해서 몇가구로 가른 긴 집-인용자)의 온돌 1간(間: 약 1평-인용자)과 부엌이 1개월 1원 50전 내외, 하등급 독채 온돌 1간과 부엌이 1개월 3원~5원 내외, 하등급 독채 온돌 2간과 부엌이 1개월 5원 내외, 부엌이 없는 하등급 온돌 1간이 1개월 1원 50전 이상이다. 이것이 대구에서 최저가이다. … 하층 빈민 64가구의 가족수는 1인 5가구, 2인 11가구, 3인 14가구, 4인 17가구, 5인 10가구, 6인 6가구, 7인 1가구이다. 모두 온돌방 1간만 있고 부엌이나 그 밖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평균 한 방에서 3~5명이 사는 셈이다. 바닥 깔개 종류는 거적, 돗자리, 다다미, 안남쌀(南京米) 자루 및 좁쌀 자루, 신문지 등이다.[30]

후지이 주지로는 위와 같이 1920년대 대구의 조선인 하층민 64가구의 상세한 주거환경 정보와 생활실태 조사 이외에도 집세를 지불하는 방법, 난방 연료와 한 달에 필요한 연료비 등에 대해서 서술하면서 시골과 다른 환경에 있는 도시 하층민이 난방 연료를 구하는 방법과 모습을 매우 상세히 기록했다. 그러고 이러한 대목에서도 '조선인 하층사회 연구' 연재의 첫 번째 대상이었던 조선인 '노동소년'들이 등장한다.

시골과 마찬가지로 불을 때야 하는데 도회지에서는 땔감을 모으러 시내로 나간다. 낡은 가마니나 좁쌀 자루를 어깨에 걸치고 시내를 배회하는 소년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나무 조각, 판자 조각, 낡은 새끼줄과 가마니, 누더기, 오래된 신문 등 땔감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잡히는대로 주워간다. 심지어 사람들 눈을 피해 배수구 뚜껑과 간판 문표 등을 낚아채어 가기도 한다. 교외의 쓰레기장에는 이런 아이들이 매일 시장이 선 것처럼 몰려들어 이것저것 찾아 돌아다닌다. 이렇게 종일 아이들이 모아 오면 넉넉하게 하루를 버틸 수 있다. 일이 없는 빈민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소년들은 이러는 사이에 자신도 모른 채 훔치는 습성이 양성된다. 악성이 되면 신발, 우산,

30) 慶北研究会, 『慶北』第一年第四号, 大邱印刷合資会社, 1922.12, p.55.

외투, 닭 등 멋대로 훔치게 된다.[31]

후지이 주지로는 이상과 같은 대구 조선인 하층민의 생활실태 조사·기록에 이어서 그 대안·결론으로 시영(市營)·부영(府營)과 같은 '공영빈민주택' 제공의 시급성을 강하게 제기한다. 1920년대 대구가 근대도시로 전환하는 과정, 그 중에서도 새롭게 도시빈민이 급격히 형성되는 상황에서 '공영빈민주택'이라는 공공주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도 매우 흥미롭다. 1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다양한 공공성 이슈 가운데 특히 '주택의 공공성'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이러한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보면 100년전 식민지 상황에서 대구의 조선인 하층사회를 기록하던 일본인이 하층민을 위한 공영주택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는 사실은 많은 생각과 반성을 불러일으킨다. 후지이 주지로는 해당 연재 마지막 부분에서 세틀먼트(settlement)[32]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른바 '지역사회혁신' 의제의 선구적인 제기라는 측면에서 눈길이 간다.

3) 하층민의 경제생활 : 전당포·고리대금

후지이 주지로가 총 8편의 대구 조선인 하층사회 기록 연재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은 하층민의 경제 상황과 연결된 '고리대금과 전당포' 관련 조사·기록 및 하층민의 직업·수입 관련 부분이다. 다른 주제의 글들이 연재 잡지 기준으로 다섯 페이지 내외인 것에 반해 두 주제는 각각 열다섯 페이지, 열 페이지에 이

31) 慶北研究会, 위의 책, p.57.

32) 세틀먼트운동은 복지가 열악한 지역에 대학생이나 지식인들이 들어가 정주하면서 주민을 조직하고 보건, 위생, 의료, 교육 등의 활동을 펼치는 운동을 가리킨다. 1880년대에 영국에서 시작해 미국 등으로 확산되었다.

른다. 고리대금의 경우는 '장(시장)'을 기준으로 한 상환 주기와 기한을 정하는 조선의 특징을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취(市取), 시변(市邊), 월취(月取)·월리전(月利錢), 일취전(日取錢)' 등의 명칭을 붙여 각각의 이자율과 상환법을 소개하면서 표 형태로도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다. 한정된 분량 문제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소개하지 못하지만, 후지이 주지로는 당시 대구 조선인 하층사회의 경제생활 정보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고리대금 종류와 상환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은행과 같은 공식적인 금융기관과 달리 고리대금과 전당포를 축으로 하는 사설 금융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찾기 어려운데, 이 점에서 후지이 주지로가 남긴 1920년대 전반기 대구 조선인 하층사회의 고리대금과 전당포 관련 상세한 기록은 식민지 시기 일상 경제의 단면을 전해주는 귀중한 정보이다. 전당포 관련 기록에서는 이자율과 실제 운영 실태를 상세히 소개하는데 공통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실태를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헥 하층민들이 처한 경제적 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설전당포' 설치를 제안한다. 해당 부분에서 주목할 부분은 공설전당포가 유럽에서는 이미 1462년에 이탈리아에서 처음 출현한 이후 1800년대 중반에 활성화되었다는 사실, 일본에서도 1919년에 도쿄의 닛포리(日暮里)에 1호점이 설치된 이후 1920년대 접어들어 4호점까지 늘었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대목이다. 후지이 주지로에 따르면 1921년에 "경성부에서도 계획했는데 사설 영업자들이 반대하고 당국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어서" 결국 추진하지 못했다고 한다. 1920년대에 이미 '공설과 사설', 즉 공공성을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후지이 주지로가 고리대금과 전당포 다음으로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은 하층민의 직업과 수입 관련 기록이다. 그는 해당 연재에서 남녀별 직업 종류와 임금·수입을 표 형태로 상세히 제시하고 있는데 남성은 총 39가지 직업과 임금 정보를, 여성은 총 14가지

직업과 임금 정보를 담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33]

〈표 3〉 1920년대 전반기 대구 조선인 하층민 남성 직업과 임금

직업 종류	임금
지게꾼(擔軍)	30~40전 내지 2원 정도
가마꾼(轎軍)	상동
마부(馬夫)	상동
청소인부	1원 내외 (하루)
인력거꾼	50~60전부터 2~3원까지
짐꾼(仲仕)	1원이상 2원까지
변소청소인부	1원 내외(하루)
반수부(搬水夫)	1원까지(하루)
심부름꾼	50~60전부터 1원정도까지(하루)
우마차 수레꾼	2원 50전 내지 4원(하루)
마차꾼	상동
신문배달	1개월 신문요금의 1할 내외. 월1원이라면 1개월 배달해서 10전 내외. 한 명이 100부를 배달하면 월 10원이 되는 계산. 수금(集金)의 경우는 수금액의 5부 내외.
고물상	구매금액의 5부 내지 1할 5부의 이익
우동팔이	*원자료 공란
두부팔이	흰두부 개당 2전, 유부 5리, 곤약 3전, 구운두부 1전. 하루 평균 3원정도 판매.
낫토(納豆)팔이	개당 이윤은 1전 5리 내지 2전. 하루 평균 20~30개 판매
과자팔이	평균 1원 정도 판매, 이윤은 약 2할 (하루)
과일·야채팔이	2~3원 판매, 이윤은 약 2할 (하루)

33) 慶北研究会, 『慶北』第二年第十号, 大邱印刷合資会社, 1922.12, pp.92~94.

안마	1원 내지 3원 (하루)
통메장이(桶輪替職)	1원 내지 2원 (하루)
우물 교환	40~50전 내지 1원 50전 (하루)
야간 우동팔이	그릇당 2전 이윤. 겨울에는 하룻밤에 50~60그릇 판매
일용직	50전 내지 1원 (하루)
솜틀기(綿打)	여름은 휴업. 한 관(貫)당 50전. 일만 많으면 이익이 많음
구두 수선	1원 내지 3원 (하루)
약판매 행상	약 2~3원을 팔면 4할 내지 5할의 이윤 (하루)
닭・계란・어류・육류 팔이	2~3원을 팔면 1할 내지 2할의 이윤 (하루)
물긷기 인부 (水汲人夫)	40~50전 내지 70~80전 (하루)
팥빵 및 현미빵 팔이	팥빵 개당 2전, 판매수당 5리. 현미빵 개당 5전, 판매수당 1전.하루에 각각 1원 내지 3원 판매
엿장사	1원 내외를 판매하면 20~30전 내지 50전 이익 (하루)
땜질	40~50전 내지 70~80전 (하루)
양산수리	50~60전 내지 1원 (겨울은 일이 없음)
부채 붙이기	*원자료 공란
기름팔이 및 석유 행상	40~50전 내지 70~80전 (하루)
목수	2원 내지 3원 (하루)
미장이	상동
공사장 인부	1원 내지 1원 50전 (하루)
목욕탕 때밀이	20원 내외 (하루)

〈표 4〉 1920년대 전반기 대구 조선인 하층민 여성 직업과 임금

무녀	제한 없음
쌀 선별(米撰)	5두섬(斗俵) 1섬당 20전. 숙련자는 하루에 3섬 선별
일용	20전 이상 50~60전 (하루)
떡장사	1원정도 판매 (하루)
바느질	30~40전 (하루)
빨래	상동
기름장사	30~40전 (하루)
과일장사	상동
돌깨기(石割)	30~40전 (하루)
물긷기	상동
여공	15전 내지 50전 (하루)
아이보기	3~4원 내지 7~8원 (한달)
하녀 봉공	상동
여관·음식점의 밥 짓기	2~3원 내지 5~6원 (한달)

이 밖에 “성냥회사 직공 일에는 여자와 소년에게 적당한 것이 있다”는 말과 함께 “임금은 하루 30전 이상 70~80전 정도의 수입이 있다. 1)빈 상자 만들기 1천개 당, 2)상자에 성냥 채우기 120포(한 포에 10개씩) 당 1전 5리, 3)포장 25개 포장 당 6리”와 같이 상세한 노동과 임금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8가지 남성 직업에 대해서는 연령대별 종사자 숫자 분포를 표로 정리했는데, 이러한 기록 역시 1920년대 전반기 대구 지역의 일상사·미시사 기록으로서 의미가 클 것이다. 그리고 조선인 하층민 64가구의 한 달 평균 노동 일수와 수입을 “10일 미만 9명, 20일 미만 15명, 30일 미만 25명, 일정하지 않음 15명. 수입은 5원 미만 남 3명/여 12명, 10원 미만 남 31명, 20원 미만 남 17명, 20원 이상 남 4명”과 같은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해당 연재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결론 부분에서 제시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설", 즉 사회이론을 소개한 부분이다. 후지이 주지로는 결론 부분에서 이전까지 제시한 실태에 대한 입장으로 '공산주의-사회주의 이론, 무정부주의-아나키즘 이론, 당시 시작된 일본의 생협(生協)운동 이론'을 소개하는데, 이런 대목에서 후지이 주지로의 사상과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그가 가장 우려한 것은 "빈곤의 세습"이다.[34]

4) 하층민 여성 문제 : 기생·공창·사창

후지이 주지로가 잡지 『경북』에 연재한 1920년대 대구 조선인 하층사회 기록의 마지막 세 편은 기생, 공창, 사창에 관한 기록이다. 이는 '빈곤과 조선인 하층민 여성 문제'를 다룬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최근 기생 숫자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도입부 문장은 1920년대 전반기 대구의 또 다른 측면을 전해주는데, 더욱 주의를 끄는 것은 기생 숫자 급증의 배경·원인으로 제1차 세계대전을 꼽은 대목이다. 후지이 주지로는 세계대전 과정에서 출현한 벼락부자들과 세계대전 이후의 경기 불황을 1920년대 전반기 기생 급증의 두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어서 그는 권번이 제시한 액면상의 '화대'라든가 공창 숫자 통계도 제시한다. 사창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사창과 조선의 사창의 차이를 소개하면서 일본과 비교해

34) 후지이 주지로는 1920년대 전반기 대구 조선인 하층민의 직업과 임금을 상세히 제시한 후 「빈곤의 원인」이라는 장에서 "경제적 원인, 교육적 원인, 정치적 원인"에 대해 서술하는데, 특히 하층민 자녀들의 "무교육"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아이들은 내버려 두면 세습적 빈곤이 끝나지 않는다"고 안타까움을 표한다. 이 밖에도 해당 기록에서 후지이 추지는 "자본제도", 즉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이익의 세습"과 동시에 실업과 임금 하락 등을 통한 '빈곤의 세습'을 만들어낸다고 사회이론 인용 등을 통해 문제제기하고 있다. 藤井忠治郎, 「鮮人下層社会の研究(五)」, 『慶北』 第二年第十号(1923.10.), 98~101참조.

조선에 사창이 “매우 적은” 이유도 덧붙인다.[35] 경성, 평양, 대구 3개 도시의 사창 숫자를 표로 기록하기도 했다.

후지이 주지로가 ‘기생·공창·사창’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가장 우려하고 강조하는 부분은 ‘화류병’이다. 해당 부분은 비단 조선에만 한정하지 않고 일본 본토까지 시야에 넣어 청년 미혼자의 화류병 실태와 관련된 구체적 수치들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사망원인 통계에서 매독으로 사망한 경우가 1919년 8,542명, 1920년 8,910명(남 4,912/여 3,998)이었다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무서운 매독 사망자 수치이다. 사망자 수가 이 정도라면 병에 걸린 사람은 몇십 배가 된다”는 의견과 함께 “1920년에 유곽에 드나든 유객수는 26,121,000명이다(통계에 근거). 가령 200명 당 1명 비율로 매독에 감염되었다고 한다면 13만 명의 화류병 환자가 증가한 셈이다. 500명에 1명 비율이라고 해도 5만 2천명의 환자가 나온 것이고 이렇게 매년 화류병 환자가 증가해 가는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해당 부분에 1920년대 대구 관련 통계나 서술은 없지만 화류병에 대한 우려에는 대구 지역도 예외가 아니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후지이 주지로는 사창과 화류병에 이어진 연재에서 대구의 조선인 하층민의 보건과 위생-질병 상황에 대한 조사 기록도 제시한다. 주거의 공간 숫자와 질병의 연동 관계를 구체적인 통계로 제시한 대목은 흥미롭다. 이어서 18가지 질병의 종류별 남녀 환자 통계와 1919년~1920년에 대유행했던 콜레라 환자 발병자-사망자 통계도 조선인-일본인으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다.

35) 후지이 주지로는 일본과 비교해 조선에 사창이 현격히 적은 것을 조혼 풍습, 금전적인 이유(첩을 두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함)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한다.

4. 마치며

근대도시는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는데, 이 가운데 도시빈민은 근대도시를 특징짓는 중요한 존재이다. 이는 일본 메이지시대 문학사의 전개 양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에서 도시빈민은 1890년대에서 1900년대로, 혹은 청일전쟁에서 러일전쟁으로 이어지는 기간에 새롭고 중요한 메이지시대 문학의 흐름을 탄생시켰다.[36] 일본이 '제국헌법' 공포로 근대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듬해 최초의 근대적 의회인 '제국의회'를 열었던 1890년경에 도쿄에는 이전에 없던 도시빈민들이 대거 등장한다. 당대 문학자들은 이 새로운 사회현상에 주목하고 그 원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다양한 문학적 구현과 실천을 시도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른바 '사회소설' 논쟁이 전개되고 이후 1900년대의 초기(기독교)사회주의문학 등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사회'라는 개념과 추상적 실체는 근대도시가 탄생시켰고 그 주요 주체는 도시빈민들이었다. 도시빈민은 근대의 중요한 개념인 '사회'를 실체화하는 동시에 일본 근대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문학적 실험을 탄생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21세기 현재와도 직결된다. 코로나19가 가르쳐주는 것들 가운데 '격차' 문제는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도시빈민-빈곤 문제는 이 격차가 도시공간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양상이다. 근대대학까지 포함해서 근대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다양한 질문

36) 민유샤(民友社) 그룹의 기관지이자 당시 가장 대표적인 신문·잡지였던 『국민신문(国民新聞)』과 『국민의 벗(国民之友)』은 도쿄에 등장한 빈민에 관심을 기울인다. 기자가 빈민굴에 6개월 체류하면서 르포기사를 연재한다. 이 무렵 빅토르 휘고의 『레미제라블』이 소개되고, '사회의 죄(社会の罪)'라는 인식이 공감을 얻는다. 같은 시기 도스토예프시키의 『죄와 벌』 번역,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의 소설 세계, '사회소설' 논쟁, 암흑소설-심각소설과 같은 소설 실험 등은 모두 도시빈민을 포함한 근대도시 문제의 자장 속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쏟아지는 지금, ‘근대도시’가 지속 가능한지 되묻는 작업도 중요해 보인다. 도시빈민의 존재는 이 문제의 역사적 기원과 과정을 점검하고자 할 때 켜켜이 쌓여 온 구체적 과제를 전해주는 동시에, 새로운 혹은 오랫동안 잊었던 ‘근대’의 중요한 가치를 상기시킨다.

후지이 주지로는 1920년대 전반기 대구의 조선인 하층사회를 기록하면서 ‘노동소년, 기생·공창·사창 여성’이라는 특정 대상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것은 결코 주관적 판단에 치우친 특수한 대상 선정이 아니다. 후지이 주지로가 주목한 두 대상은 실은 식민지 상황에서 조선의 근대도시가 형성되던 과정의 매우 중요한 사실과 맞닿아 있다. 식민지 조선의 근대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유입된 연령층은 의외로 남녀 모두 10세~14세와 15세~19세 순이었다.[37] 이 연령대는 후지이 주지로가 밝힌 ‘노동소년 및 기생·공창·사창 여성’의 나이대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는 노동소년 관련 기록에서 “최근 지방 농촌에서는 생활고가 점점 심해진 결과 자녀를 타지에 벌이 보내는 경향이 현저해졌다”고 적고, 기생 관련 기록에서는 “최근 기생 숫자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하층 빈민들이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딸을 파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는데, 이것은 현대의 도시사 연구가 확인한 데이터들과 정확히 일치한다. 식민지 조선의 근대도시는 이렇게 10대 남녀를 빨아들이면서 몸집을 불려갔던 것이다. ‘모던걸·모던뽀이’와 그들의 ‘연애의 시대’와 공존했던 또 다른 세계에 훨씬 많은 10대 ‘노동소년과 기생·공창·사창 여성’들이 존재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조선의 도시들도 기존의 조선인-일본인 구역의 이중성-배타성에 중심부-주변부의 이중성-배타성을 더하면서 명실상부한 식민지 근대도시로 탄생했던 것이다.

후지이 주지로의 기록과 활동은 1920년대에 접어들어 일본 본

37) 권태환·윤일성·장세훈, 앞의 책. pp.120~123 참조.

토와 식민지 조선에서 동시에 본격화된 '사회사업' 영역에서도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다. 사회복지사업의 기원에 해당하는 '사회사업'은 당시 '빈민구호(救護)사업, 은사금구료(救療)사업, 방빈(防貧)사업, 방면(方面)위원사업, 교화사업, 재난민구호사업, 군사원호사업, 실비구료사업, 복리시설사업' 등을 주요 영역으로 삼았다.[38] 이러한 사회사업의 탄생·출현 배경은 일본 본토의 경우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불경기 및 1918년에 일어난 전국적 '쌀소동' 사건, 식민지 조선의 경우는 1910년대에 진행된 토지조사사업 이후 상황과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이 꼽힌다.[39] 식민지 조선의 사회사업은 일본 본토의 기본정책 수행을 위한 식민지의 불안 요소 관리가 근저에 깔려 있었다고 한다. 빈민 및 자연재해민 대책 이외에 '방면위원사업'이 중시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식민지 조선의 사회사업의 기원으로 조선총독부가 1915년 11월 10일에 다이쇼 천황의 은사금을 빈민구제에 활용한다는 규정을 발표한[40] 것을 꼽을 수 있으나 공식화되는 것은 1921년 4월에 '조선사회사업연구회'가 창설된 시점이다. 조선사회사업연구회는 1923년 5월에 기관지 『조선사회사업』을 월간으로 발간하기 시작하고 1929년에는 '조선사회사업협회'로 조직을 개편한다.[41] 이러한 개략적인 흐름에 비추어 보더라도 1922년부터 잡지 『경북』에 대구의 조선인 하층사회 기록을 연재하기 시작한 후지이 주지로의 기록과 활동은 사회사업 역사에서도 매우 선구적인데 이에 더해 그의 활동이 사회사업 역사에서 매우 이질적이고 특별하게 평가받는 대목이 더욱 주의를 끈다.[42] 그 이유는 두 명의 관련 연구자 모두

38) 尹晟郁, 앞의 책, p.1.
39) 尹晟郁, 위의 책, p.31.
40) 尹晟郁, 위의 책, pp.181~182.
41) 尹晟郁, 위의 책, p.194.
42) 『植民地社会事業関係資料集 朝鮮編 別冊[解説]』(1999)에서 7일본연구자

밝히고 있지 않으나 공통적으로 후지이 주지로를 식민지 지배정책과 보조를 맞춘 사회사업 틀에서 벗어난 존재로 언급한 대목은 발표자가 이후 관심을 기울이고 싶은 과제이다. 약 100년 전 일본인 후지이 주지로가 남긴 대구의 조선인 하층사회 기록은 식민지 시기 조선의 근대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을 검토할 때도, 그리고 100년이 지난 현대 한국의 도시문제를 검토할 때도 의미 있는 사료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慶北研究會, 『慶北』, 大邱印刷合資會社, 1922.9.~1924.12.
高見健一, 『拾周年記念・財団法人朝鮮扶植農園』, 朝鮮扶植農園, 1921.
_____, 『大阪汎愛扶植會』, 大阪汎愛扶植會, 1909.
藤井忠治郎, 『朝鮮無産階級の研究』, 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 1926.
_____, 『黎明を仰くもの』, 大橋書店, 1930.
_____, 『日帝下貧民關係資料1-2』, 여강출판사, 1986.
三輪如鐵, 『朝鮮 大邱一斑』, 杉本梁江堂, 1911.

2. 논문

최범순, 「식민지 조선의 「레미제라블」과 대구 조선부식농원」, 『일본어문학』73, 2016.5.
飛鋪秀一, 「朝鮮扶植農園」, 『朝鮮』 社會教化事業第77号, 1921.

나가오카 마사미(永岡正巳)와 한국연구자 홍금자 모두 후지이 주지로의 활동을 일본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보조를 맞춘 식민지 시기 사회사업 틀에서 벗어나는 사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공통된 의견을 피력했다. 나가오카 마사미 「식민지 사회사업사 연구의 의의와 과제(植民地社会事業史研究の意義と課題)」, p.22. 홍금자 「일제시대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 서비스(日帝時代の社会福祉政策及び社会福祉サービス), p.63.

3. 단행본

박상호(사도요한신부), 『한국SOS어린이마을50년사 1963-2013』, 분도출판사, 2014.
강만길, 『日帝時代 貧民生活史 硏究』, 창작사 창비신서79, 1987.
권태환, 윤일성, 장세훈 『한국의 도시화와 도시문제』, 다해, 2006.
미와 조테츠 지음, 최범순 옮김, 『조선 대구일반』, 영남대학교 출판부, 2016.
坂本愁一・木村健二, 『近代植民地都市:釜山』, 櫻井書店, 2007.
京城帝國大學衛生調査部, 『土幕民の生活・衛生』, 岩波書店, 1942.
尹畯郁, 『植民地朝鮮における社會事業政策』, 大坂經濟法科大學出版部, 1996.
高崎宗司, 『植民地朝鮮の日本人』, 岩波書店, 2010.

(투고일: 2021. 5. 23 심사완료일: 2021. 6. 20 게재확정일: 2021. 6. 22)

최범순
소 속: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일어일문학과
주 소: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종합강의동 513호
전자우편: bohemiankobe@ynu.ac.kr

[Abstract]

The Japanese Who Recorded Daegu

- Records of the Lower Class Society in Daegu by Chujiro Fujii -

Choi, Bum-soon

This thesis aims to introduce the main contents of the records of the lower class society of Koreans in Daegu in the first half of the 1920s by Chujiro Fujii, and to clarify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records. In this process, he also revealed the importance of a character named "Fujii Chujiro," who has not received any attention so far, and his actions, and the material he called "Gyeongbuk", a magazine that serialized the lower class society of the Koreans in Daegu in the 1920s.

This thesis reveals that the records of Chujiro Fujii's detailed investigation of 64 generations of lower-class Koreans in Daegu in the 1920s were at the forefront of the records of the lower class society of Koreans during the colonial period. And the details of the record convey the very important things that Daegu faced in the process of converting to a modern city in the first half of the 1920s. In particular, the contents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were not limited to Daegu, but were also problems that had to be experienced when major regions of Joseon were converted to modern cities in the first half of the 1920s. In addition, the magazine 『Gyeongbuk』, in which the relevant records were serialized, is a rare material, with only one original material in both Korea and Japan, and it is the fastest case among the monthly public affairs magazines published by local governments during the colonial period. It has been confirmed that it contains various and important information from the first half of the 1920s.

Key words: Colony, Daegu, 1920s, Fujii Chujiro, Modern city, Urban poor, Social work